

# 장커(張軻)의 북경사합원 리노베이션 연작에 나타난 전통성 이해

## Understanding Traditionality in Zhang Ke's Beijing Siheyuan Renovation Series

왕 문 군\*                      문 한 솔\*\*                      김 현 섭\*\*\*  
Wang, Wenjun                      Moon, Hansol                      Kim, Hyon-Sob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Master's Course Student, Dep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Korea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Ph.D. Candidate, Dep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Korea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Korea (Corresponding author: archistory@korea.ac.kr)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 of traditionality in contemporary Chinese architecture by examining Zhang Ke's series of Beijing Siheyuan renovation projects, including Micro Yuan'er Children's Library & Art Center (2012~16), Micro Hutong (2013~16), Co-Living Courtyard (2015~17), and Hutong Social Housing (2018~19). Zhang Ke has achieved international acclaim for his approach, which combines elements of Western modernism with traditional Chinese architecture to forge a distinctive identity. In these renovation projects, he does not restore the traditional courtyard form but instead preserves the informal living spaces of local residents, blending old and new materials and tectonics based on current usage. The study analyzes his work through three lenses: ad hoc adoption of materials, hybridization of structural systems, and a house within a house approach. It concludes that Zhang Ke's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ity can be defined by three concepts: re-problematization of tradition, viewing tradition as a complex way of life, and a realist perspective of now here.

키워드 : 장커(張軻), 북경사합원 리노베이션, 전통성, 호동(衚衕) 신진대사

Keywords : Zhang Ke, Beijing Siheyuan Renovation, Traditionality, Hutong Metabolism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대화의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없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중국은 문화대혁명(1966~76)과 뒤늦은 개혁개방으로 이웃 나라인 일본, 한국보다 더딘 문화의 발전 과정을 거쳐야 했고, 자본주의의 핵심 기제라 할 수 있는 전통을 외면했다. 동아시아 문화의 맹주였던 중국에서도 전통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질문으로 남아있다.

중국 건축계에서 전통에 관한 논의는, 20세기 초 해외에서 교육받은 1세대 건축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근대건축과 민족성이 공존하는 설계 방법을 모색했는데, 이는 전통 궁궐식 건축의 부흥을 의미했다. 특히 량쓰청(梁思成, 1901~72)의 전통 중국건축에 관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큰 지붕[大屋頂]’은 ‘민족 형식’의 대표적 특징으로 손꼽히게 되었다.<sup>1)</sup> 량쓰청의 연구는 혁명 정권의 마오주의자들에게 ‘복고주

1) 량쓰청은 중국건축의 특징을 9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장엄한 지붕[莊嚴的屋頂]’과 ‘공포[斗栱]’를 가장 주요한 요소로 보았다. 유관 문헌(梁思成, 林徽因, 「祖國的建築傳統與當前的建設問題」, 1952; 梁思成, 「中國建築的特徵」, 1954)은 Liang(2001)에 재출판되었다. ‘큰 지붕’은 이후 얻게 된 별칭이다.

의’라 비판받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을 양식적으로 원용한 건물은 대량으로 양산되었다(Hu, 2014). 이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체제 선전용 사회주의 건물이 설계되었으나, 이 또한 민족 형식을 간소화한 것으로 전통을 양식화하는 경향은 계속되었다(Yang, 2002).

전통에 대한 진일보한 논의는 9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장용허(張永和, 1956~)를 비롯한 당대의 건축가들은 ‘실현 건축’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건축 관행을 시도했다. 전통을 형식에서 찾았던 과거와 달리, 공간, 재료, 구법, 지역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했다(Li, 2018). 2012년 왕슈(王澐, 1963~)의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은 중국 건축계의 일대 사건으로, 서양건축을 참조하지 않아도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 개발에 밀려 한동안 소홀히 다루어온 전통과 중국성에 관한 질문을 다시 의제화하는 계기가 되었다(Ma,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새롭게 제기된 동시대 중국건축의 전통성 논의를 살펴보려 한다. 논의의 중심을 전통에 둔 까닭에, 작업의 범위도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주거, 북경사합원으로 한정하였다.<sup>2)</sup>

2) 그간 진행된 사합원 연구는 대부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합원의 전형적 형식과 공간 구성에 집중되었다. 근래, 1949년 사회주의 정권 수립 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 50년간의 사합원의 변

최초의 북경사합원 사례인 후영방(後英房)은 원대(1260~1368)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유형은 명·청대(1368~1912)에 성립된 것이다. 청대 말에도 북경사합원은 본래 그 특성을 유지하였으나, 신중국 성립(1949) 이후 단행된 ‘사유 주택의 국유화’는 사합원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한 가족이 사용하던 단독 주택에서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집합주택인 대잡원(大雜院)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sup>3)</sup> 경제조정정책기(1958~65)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도시인구에 주거난이 가속화되자, 중국 정부는 주거를 대량 보급하기 위해 사합원을 철거하거나 대잡원으로 개조하였다(Lu & Wang, 2017).

개혁개방시기(1979~89)를 지나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철대건(大拆大建)’은 계속되었으나,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의 양상이 생겨났다. 1993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1998년 ‘실물 주택 분배제도’의 중단은 중국의 모든 주택이 ‘상품’으로 전환되고, 거대한 부동산 시장이 탄생하였음을 의미했다. 2000년대에 들어, 주택은 체제에 의해 일률적으로 보급되던 재화에서 개인의 기호와 욕망을 드러내는 ‘문화상품’으로 그 위상을 달리하게 된다. 사합원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건축가의 개입 또한 활발해졌다. 원래 주거 기능으로 사용하던 전통사합원은 현재 레스토랑, 카페, 호텔, 작업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Lu & Wang, 2017).

중국 건축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합원의 보존을 모색하고 있다. 하나는 보존 가치가 있는 사합원을 ‘문화보존단위’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 주거지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조직을 부분적으로 이식하는, 이른바 ‘유기갱신(有機更新)’의 방식이다(Han, 1997). 후자의 방식을 따른 선구적 사례로, 청화대학의 우량용(吳良鏞, 1922~) 교수가 제시한 국아호동(菊兒衚衕) 프로젝트가 있다. 사합원의 철거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던 80년대 후반, 우량용은 전통적인 도시 구조에 새롭게 제안한 사합원 유형을 이식하여 옛 지구를 재생시키고자 했다. 전통주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중국의 신진건축가들에게도 이어져, 다양한 형식과 프로그램의 리노베이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커(張軻, 1970~)의 작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북경 대책란(大柵欄) 지역 사합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초청된 장커는 전통적인 주거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대잡

원의 새로운 지속 가능성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미잡원(微雜院)’(2012~16)이라 명명한 이 작업에서 장커는, 정원을 중심으로 한 사합원의 전통형식을 복원하는 대신, 그간 흠뻑 간주하여 철거의 대상이었던 미허가 증축 공간을 개조·재사용하였다. 제15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된 장커는 이 작업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으며, 2016년 아가칸 건축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건축가 장이판(張益凡)은 이를 두고 “중국의 현대건축이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현재 중국 건축계에서 그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말이다(Zhang, 2016). 장커는 철거·신축 중심의 개발 방식을 비판하고, 역사도시의 근원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시적 생활공간을 토크아보라 요구한다. 전통에 대한 장커의 유연한 인식과 건축적 제안은 사합원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커의 사합원 리노베이션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서도 그 사례가 드물다. 국내에서도 그 연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본고는 장커와 그의 작업을 한국에 소개하는 초기의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커의 사합원 작업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주거와 현대건축을 접목해 온 그의 건축 방법론을 고찰하고, 동시대 중국 건축의 전통성을 탐색한다. 이 같은 본고의 문제의식은 한국의 현대한옥 논의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Lee & Kim(2014)은 한 건축가의 한옥 리노베이션 사례를 전통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다.<sup>4)</sup>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장커는 양식적 전통에 반대하며 생활 면면에 흐르는 일상의 전통을 존중한다. 서양의 현대건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전통건축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했다. 장커는 2010년대 초부터 북경 구성(舊城)에 자리한 네 개의 사합원 리노베이션 작업을 진행하며 이러한 입장을 구체화했다.<sup>5)</sup> 또한 그의 ‘미시적 도시 재개발론’이라 할 수 있는 ‘호동 신진대사(Hutong Metabolism)’에서도 사합원 연작을 대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Derakhshani et al., 2021). 이에 따라, 본고는 이 네 건의 리노베이션 연작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본고는 우선 2장에서 건축가 장커와 그의 건축관, 그리고 북경사합원에 관한 그의 입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사합원 리노베이션 연작을 고찰하고, 4장에서는 이 작업들에 나타난 특정 건축어휘를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장커의 전통성을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의 건축이 가진 현대적 의미를 밝힌다.

모 양상을 생활사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도 있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1998년 주택의 실물 분배 중단 이후, 개발과 보존, 현대와 전통이라는 사회적 문제의식 속에서 신세대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리노베이션된 사합원의 현재적 변용에 주안점을 둔다.  
3) 1976년에 발발한 당산대지진은 대잡원이 대규모로 형성되는데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되었다. 대지진 발생 이후, 북경 주민들은 사합원의 정원에 가건물을 지어 생활하였는데, 지진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가건물을 주거난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제시함에 따라, 다수의 사합원이 원래의 공간 형식을 잃고, 대잡원으로 변모하였다(Shi, 2008).

4) 해당 연구는 현대한옥 전체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로 이어졌고(Lee & Kim, 2016), 2000년대 한옥부흥을 ‘현대성’과 ‘신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Kim & Lee, 2019).

5) 네 작업은 시간순으로 다음과 같다. 미잡원(微雜院), 미호동(微衚衕), 공생원(共生院), 호동 사회주택(衚衕社會住房).

## 2. 건축가 장커(張軻, 1970~)

건축가 장커는 중국 동부 안휘성(安徽省) 출신이다. 1996년 칭화대학교 건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Graduate School of Design, Harvard University)에서 유학했다(1996~98). 2001년 건축사무소 표준영조(標準營造, standardarchitecture)를 설립하고, 명성장유지공원(明城牆遺址公園) 국제설계공모에서의 당선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무 작업을 시작했다. 대표작으로 서장자치구의 낭구 보트선착장(西藏娘歐碼頭, Niang'ou Boat Terminal), 상하이의 노바티스 캠퍼스 빌딩(上海諾華園區5號槌, Novartis Campus Building in Shanghai), 북경 구성의 미잡원(微雜院, Micro Yuan'er)이 있다. 상업화에 맞서 비영리건축을 추구하는 장커는 세계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고, 2017년에는 중국 건축가 최초로 알바 알토 메달을 수상하였다. 그는 동시대 중국건축을 선도하는 건축가다. 2016년부터 하버드 GSD에서 설계 스튜디오를 이끌며 중국의 다양한 주거 문화와 양식을 문제화하고 있다(Zhi, He, & Dai, 2018).

장커는 자신의 사무소명에 건축관을 밝혀놓았다. ‘표준’과 ‘영조’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지만, 실제 그의 의도는 원래 의미와 반대이다. 그는 실재하지 않는 표준(관념)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반어적인 의미의 ‘표준’을 사무소 이름으로 사용했다. ‘영조’는 건축가의 본질적인 활동이자 기본을 의미한다. 옛 건축을 뜻하는 영조는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건축에 밀려 이제는 잊힌 말이 되었지만, 장커는 이를 다시 상기하여 서양건축을 단순히 모방하고 인용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고자 한다(Zhi, He, & Dai, 2018).

장커는 당대의 유행을 따르거나 전통을 의도적으로 고취하는 일에도 비판적이다. 그의 이러한 저항적 태도는 90년대 초, 칭화대 재학시절에 형성된 것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당시 중국 건축계에는 다양한 비판적 실천과 담론의 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미국에서 귀국한 장용허는 최초의 독립 건축사무소, 비상건축(非常建築)을 북경에 개설하는데, 정보의 유통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 비상건축의 존재는 장커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석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우량용 교수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다. 사합원의 보존과 갱신의 전문가였던 우량용 교수의 지도하에 장커는 찰스 코레아(Charles Correa, 1930~2015)의 지역주의 건축을 연구했다(Zhang, 1996). 그를 세계적인 건축가로 이끈 사합원 연작은 이러한 내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구성 내 개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옛 지역을 백지상태로 만든 후 대규모로 개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 지구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건물의 원형을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방식이다. 장커는 두 개발 방식 모두, 해당 지역 원주민들의 삶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별 건물의 내부에서부터 소규모 리노베이션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동 신진대사’는 미시적 규모의 구도심 재개발을 제안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어로, 호동과 주민을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고 유기적 개발을 강조한다(Correa

Mehrotra, 2021). 사합원 리노베이션 연작은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한 작업이다. 장커는 사합원이 대잡원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허가 증축 공간을 보존하여 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그는 현재 원주민들의 거주 방식을 존중하며 대잡원의 잡거(雜居) 방식을 유지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사합원의 원형 보존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다(Jia, 2017). 장커에게 중국성(中國性, Chineseness)이나 전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으로, 형태(형식)로 일반화하기보다 감성으로 다가야 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양식화된 전통에 반대하면서도, 현재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는 장커의 전통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3. 사합원 리노베이션 연작

장커는 2012년 북경 대책란 투자유한책임공사(北京大柵欄投資有限責任公司)의 의뢰를 받아, 북경 서성구 대책란 지역에서 사합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앞서 언급한 네 개의 연작은 장커의 대표작들로서, 8년 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작업을 시작한 시간순으로 각 사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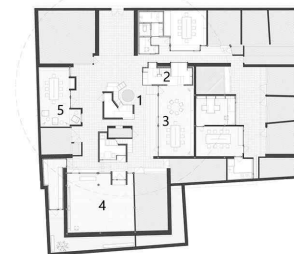
### 3.1 미잡원(微雜院, Micro Yuan'er; 설계: 2012~14, 시공: 2015~16)

미잡원은 장커의 사합원 리노베이션 연작 가운데 첫 작업에 해당한다. 이곳은 원래 사찰로 사용되다가, 신중국이 수립된 이후 열두 가구가 모여 사는 대잡원으로 변모하였다. 장커는 다양한 시간적 층위를 간직한 이곳을 어린이 도서관 및 예술 센터로 리노베이션하였다. 원주민과의 합의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된 작업으로, 건축가의 ‘미(微)개입’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Hou, 2017).



a) Courtyard

b) Library



- 1. Pavilion
- 2. Library
- 3. Reading room
- 4. Dancing classroom
- 5. Art classroom

c) Floor plan

Figure 1. Micro Yuan'er (Derakhshani et al., 2021)

정원 가운데 자리한 회화나무와 파빌리온은 프로젝트의 중심이다.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파빌리온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전망대이기도 하다.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도서실, 독서실, 무용실, 미술실이 사방으로 배치되어 있다.

목구조를 제외한 건물 대부분에 회색 벽돌이 사용되었고, 바닥에도 회색 벽돌을 깔았다. 하지만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다. 현장에 버려진 옛 벽돌을 재사용했기 때문이다. 파빌리온의 북동쪽 대각선 방향에 자리한 도서실은 미잡원의 또 다른 중심 건물로, 먹물을 섞은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해 만들었다. 재료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주재료인 벽돌과 어우러지며 전체적인 회색톤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가옥에 삽입된 형태의 도서실은 독립된 구조체로 만들어져, 목구조와 강한 대비를 이룬다. 건축과 가구, 자연 채광 천창이 콘크리트로 일체화되어 있다. 도서실의 전면창은 외부로 확장되어 기존 건물과의 경계를 허문다.

3.2 미호동(微衞衞, Micro Hutong; 설계: 2013~16, 시공: 2015~16)

미호동은 사합원 연작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작업이다. 35㎡의 대지에 바닥면적의 합계 또한 30㎡밖에 되지 않는다. 협소한 호동 공간에서 거주 가능성을 시험했던 프로젝트이다. 장커는 이 작업의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니었음에도 건축 자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했고, 준공 후 주택 운영 권한을 위임받았다(Sun, 2018).



Figure 2. Micro Hutong (Derakhshani et al., 2021)

미호동은 전면부, 정원부, 후면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남쪽 주도로와 면한 전면부는 원래 대잡원의 일부였던 건물이다.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다목적 전시실로 만들어졌는데, 인근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시실을 지나 정원에 들어서면, 다섯 개의 직육면체를 엮갈려 쌓아 만든 호스텔이 나타난다. 북경의 전통 거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건축이다. 후면부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설치된 공용 주방과 화장실이 있다.

장커는 역사적 기억을 드러내기 위해 전시실 입면을 나무판, 골판지, 철판 등의 폐자재를 콜라주하여 만들었다. 전시실의 목구조도 일부 변형되었는데,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기둥을 제거하고, 도리 아래에 철판 보를 덧대어 보강하였다. 미호동의 주요 건물인 호스텔은 2층으로 되어 있다. 미잡원의 도서실과 마찬가지로, 먹물을 섞은 노출콘크리트로 만들었다. 정교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업으로, 건물 자체의 조형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창의 프레임을 최소화하였다. 밀리미터 단위로 섬세하게 주문 제작된 프레임은 유리의 투명성을 더하며 내·외부 공간의 시각적 일체감을 도모한다.⑥ 1층에는 화장실과 식당, 2층에는 침실과 공부방, 다실이 있다. 2층에 있는 세 개의 방은 1층 복도에만 연결된 탓에 다른 방으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1층 복도로 내려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부 생활의 편의와 기능을 도외시켰다는 비판에도, 장커가 이 작업에서 집중하고자 했던 바는 공간이다. 장커는 “건축 작업의 본질은 내부 공간”이라고 밝히며, 매스의 변화에 따라 정원의 형상이 변하는 일련의 ‘형상과 배경(figure & ground)’ 사례를 스케치에 담았다(Derakhshani et al., 2021). 결과적으로 다섯 개의 방으로 둘러싸인 내향적 정원이 완성되었다. 각 방에는 냉난방 및 자연환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2층 지붕에 있는 세 개의 개방형 채광창 또한 자연환기가 가능한 장치로, 미잡원의 도서관에서 선보인 채광창과 유사성을 보인다.

3.3 공생원(共生院, Co-Living Courtyard; 설계: 2015~16, 시공: 2015~17)



Figure 3. Co-Living Courtyard (Derakhshani et al., 2021)

공생원은 여러 가구가 모여 살던 대잡원을 정원을 공유하는 두 개의 건물로 리노베이션한 사례이다. 하나는 입구

⑥ Frampton(2021)은 이러한 정교함을 두고, 미국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업이라 말한다.



정면(남서쪽)에 위치한 독립 공간으로, 원래 미허가 증축 건물이었다. 벽을 더 하나의 공간(방)으로 만들고, 화장실을 비롯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방 이면에 장방형의 사적 마당도 있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큰 T자 모양의 연속된 공간으로, 기존 건물을 수리하고 칸막이를 제거하여 만들었다. 주로 공공에 열린 전시실이나 교실로 사용된다(Hou,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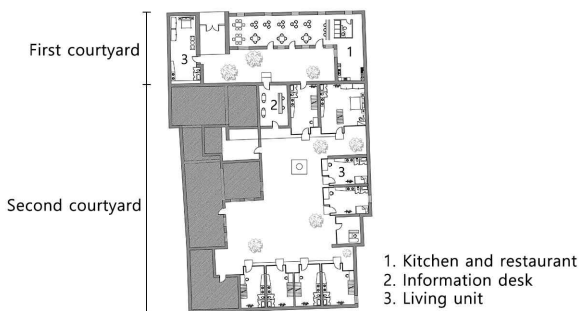
새로 추가된 입구와 회랑은 벽돌을 섞은 노출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회랑의 일부가 벽돌로 지어진 옛 건물의 외벽에 맞대어 있다. 전시실의 내벽 또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데, 기존 목구조의 기둥과 보 위에 덧대어 만들어졌다. 조적조와 목구조, 콘크리트구조가 격식 없이 뒤섞여있다. 이 작업의 백미(白眉)는 건물의 필수 기능을 ‘모듈’로 해결한 점이다. 주로 전시실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에 8㎡ 크기의 주거 모듈과 4.4㎡ 크기의 기능 모듈(서비스 코어)을 설치하여 공사(公私)의 공존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sup>7)</sup> 두 모듈 모두 전통가옥의 실내 폭에 상응하는 크기로 만들어져, 다른 구옥(舊屋)에도 적용이 가능하다(Hou, 2017).

3.4 호동 사회주택(衞衛社會住房, Hutong Social Housing; 설계: 2018, 시공: 2019)

호동 사회주택은 대잡원을 공동 주택으로 개조한 것으로, 장커의 작업 가운데 사합원의 형식을 가장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례다. 인근 두 대지에 계획되었으나, 한 곳만 시행되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임대 주택으로 리노베이션한 후, 이전 거주민의 재입주를 권장하였다(Derakhshani et al., 2021).



a) First courtyard                      b) Second courtyard



c) Floor plan

Figure 4. Hutong Social Housing (Derakhshani et al., 2021)

호동 사회주택은 전원(前院, First courtyard)부와 내원(內院, Second courtyard)부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원에는

7) 서비스 코어는 주방, 욕실, 화장실, 세탁기(건조기), 옷장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설비와 가구를 포함한다.

독립된 한 가구와 공동 주방 및 식당, 안내소가 있다. 솥을 대문을 지나 전원에 이르면 식당이 보이는데, 이곳은 원래 사합원의 도좌방(倒座房)에 해당하는 곳이었다.<sup>8)</sup> 안내소를 지나 내원에 이르면, 여덟 개의 주거유닛으로 구성된 공동 주택이 나온다. 특이한 점은 대지의 반만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이 리노베이션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를 이룬 영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옛집과 리노베이션된 집이 내원을 공유하는 독특한 사합원이 완성되었다.

전원에 자리한 식당과 안내소의 입면은 크기와 색깔이 다른 벽돌로 구성되어 있다. 리노베이션 현장에서 버려진 옛 벽돌을 재사용했기 때문이다. 벽돌벽이 기존의 기둥과 도리를 가려, 상부의 목구조를 제외하면 조적조 건물로 보인다. 식당 일부는 콘크리트구조로 재구획되어, 기존의 목구조와 대비를 이루는 공간 안의 공간이 되었다. 여러 재료와 구법이 혼용된 전원의 건물과 달리, 내원에 자리한 공동 주택은 기존의 목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새로 삼입된 재료와 주거 모듈은 각자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구조 형식을 침범하지 않는다. 이곳에 적용된 주거 모듈은 앞선 사합원 작업에서 시험했던 모듈의 개량된 버전으로, 서로 다른 모듈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식의 주거 유닛이 개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장커의 사합원 연작에 나타난 일관된 건축어휘

앞장에서 장커의 사합원 리노베이션 연작을 개괄함으로써 그의 기본적 작업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장커는 원주민의 삶을 존중하고 전통을 보존하려 하지만, 원형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작업의 중심을 현재의 쓸모에 두고, 재료와 구법을 혼용하여 공간을 개선해 나간다. 구도심의 부족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현대 기술의 도입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재료, 구조, 공간의 관점에서 네 작업에 나타난 일관된 건축어휘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재료의 임시변통



Figure 5. Ad hoc adoption of materials (Derakhshani et al., 2021)

장커의 사합원 리노베이션은 끝나지 않은 작업이다. 유동적인 현장 여건에 완결된 계획은 무의미했고. 건축가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재료의 임시변통’은 장커가 고안한 현장 개입 방식이다. 폐자재를 재활용하거나 일상

8) 도좌방은 대문이 딸린 행랑채를 말한다.

용품을 변통하여 장소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공간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재료의 임시변통은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버려진 옛 벽돌의 재사용’이다. 이는 리노베이션 연작의 공통된 방식으로, 호동 사회주택에서 그 사용이 돋보인다. 사회주택의 공동 식당 내벽에 크기가 다른 옛 벽돌과 새 벽돌이 임시변통적으로 혼용되었는데, 흘러간 세월을 증명이라도 하듯 퇴적암의 지층처럼 쌓여있다. 둘째, ‘폐자재의 재활용’이다. 특히 미호동의 전면부 입면은 버려진 합판과 골강판을 짜 맞추어 만들었는데, 재료에 대한 장커의 남다른 감각을 보여준다(Sun, 2018). 셋째, ‘먹물을 섞은 노출콘크리트의 사용’이다. 이 또한 리노베이션 연작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장커는 컬러 콘크리트용 특수 안료 대신,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먹물을 임시변통으로 콘크리트에 배합했다. 여러 번의 농도 실험을 통해, 얼룩이 났 주변의 벽돌과 동질의 회색톤을 구현할 수 있었다(Sun, 2018).

크기와 물성이 다른 재료의 혼용은 불합리한 건축 방식이라 여겨진다. 검증되지 않은 재료의 사용은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하자 발생을 높인다.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도 임시변통적인 재료 실험은 연작 내내 계속되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생활공간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커는 재료를 건축의 기본 요소로 이해하며, 장소가 간직한 시간의 단서를 재료에서 찾는다.

#### 4.2 구법의 혼용



Figure 6. Hybridization of structural system (Derakhshani et al., 2021)

동아시아 전통건축과 서양건축이 대별되는 지점은 재료와 구법에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커는 사합원 리노베이션 작업에서 목구조의 형식성에 구애받지 않으며, 구법을 혼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법의 혼용’은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구법의 병치’이다. 미잡원의 도서관은 전통 목구조에 콘크리트구조가 삽입된 형태이다. 나무 기둥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었다. 경사지붕을 형상화한 콘크리트 지붕은 목구조 지붕과 대비를 이룬다. 미호동의 호텔은 원래 2013년, ‘베이징 디자인 위크(Beijing Design Week)’라는 행사에 출품하기 위해 목재 합판으로 제작되었다가, 전시 이후 콘크리트로 재건축되었다(Sun, 2018). 이에 반해 전면부는 옛 사합원 건물을 보수한 것으로, 목구조의 형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콘크리트의 가소성을 드러낸 호텔의 기하학적 형태는 목구조로 지어진 전면부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비일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둘째, ‘구법의 혼성화’이다. 공생원의 북서쪽 측벽은 원래 벽돌로 만들어졌는데,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콘크리트벽이 좌우로

덧대어져 마치 세 겹의 벽이 세워진 듯 보인다. 조적조에 콘크리트구조가 혼합된 형태이다. 전시실 내벽 또한 기존의 나무 기둥과 보 위에 콘크리트를 덧대어 만들었다. 연결 부재[樑]를 잃은 도리는 콘크리트 벽에 홈을 패어 고정하였다(Hou, 2017). 실내의 콘크리트 벽은 실제로 상부의 목구조를 지지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목구조의 연속성을 끊어낸다. 호동 사회주택의 전원부 건물(공동 주방 및 식당, 안내소)에는 세 가지 구법이 섞여 있다. 기존의 목구조 건물은 외벽이 벽돌로 마감되어, 외부에서 보면 마치 조적조 건물처럼 보인다.<sup>9)</sup> 실내에는 콘크리트벽과 벽돌벽이 번갈아 가며 사용되었다. 지붕에만 그 모습을 드러낸 목구조는 두 개의 다른 구조 형식에 얹혀 무게를 잃은 듯 떠 있다.

장커는 전통 목구조를 고수하거나,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전통건축의 형태나 구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어 표상화하는 것은 키치화와 다름없다고 본다. 구조 형식을 보존하기보다 일상 공간의 효율을 우선에 두기에, 현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필요에 따라 체계의 연속성을 허물고 이종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 4.3 옥중옥(屋中屋) 체계



Figure 7. A house within a house system (Derakhshani et al., 2021)

장커는 기존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인프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옥중옥 체계’를 채택했다. 옥중옥이란 하나의 큰 건물 안에 작은 건물 여럿이 공존하는 형국을 말한다(Hou, 2017). 이러한 개별 공간은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주요 구조물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의 독립성이 강조된다. 장커의 ‘호동 미니집’은 전통 가옥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모듈을 개념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옥중옥 체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리노베이션 연작 모두 옥중옥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미잡원 도서관은 모듈 개념이 처음 적용된 사례이다. 목조 건물 내에 독립된 콘크리트 모듈이 설치되었다. 미호동은 호동 미니집의 모듈 개념이 변형·적용된 사례로,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을 다섯 개의 모듈로 나누어 수용한다. 같은 크기의 모듈을 위계적인

9) 사합원은 한옥과 달리, 목구조와 조적조가 혼용된 전목구조이다. 하지만 호동 사회주택의 전원부에 사용된 벽돌벽은 건축가가 의도적으로 목구조의 기둥과 도리를 가리기 위해 건물 입면에 덧댄 것으로, 전목구조의 형식체계를 허물고 있다.

10) 북경 구도심 내 가옥에 설치 가능하도록 계획한 8~10㎡ 규모의 모듈이다. 화장실·주방·샤워실·펜트리 등의 생활 인프라라는 물론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까지 갖추고 있다(Hara et al., 2016).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떼어놓았다. 각각은 독립된 공간이면서도 전체의 부분 공간이 된다. 공생원은 모듈이 기능적으로 확장된 사례다. 하나의 공간 안에 사적인 주거 모듈과 공적인 기능 모듈(서비스 코어)을 함께 설치하여, 사적 위계가 다른 두 모듈의 공존 가능성을 시험한다. 호동 사회주택은 모듈의 평면 확장을 시도한 사례이다. 세 개의 기능 모듈을 통해 아홉 개의 주거유닛을 만든 사례로,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하나의 주거유닛은 독립된 생활공간이면서도 정원의 일부가 된다.

장커의 모듈은 주거의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그 형태를 보면 적층이나 조합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건축가는 구도심의 도시 조직과 옛 건축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가의 개입을 최소화한 모듈 방식을 개발했다. 주거 여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개발된 모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예방하면서도 현대적 도시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 5. 결 론

앞장에서 사합원 리노베이션 연작에 나타난 장커의 일관된 건축어휘를 살펴보았다. 그는 원주민의 일상을 보존하고 장소성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재료를 사용하고, 구법을 혼용하며, 옥중옥 체계를 도입하였다. 전통건축의 형식성에 얽매이지 않는 건축가의 이러한 자세는 일견 전통과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전통에 관한 장커의 남다른 생각과 실험정신에 기인한 것으로, 전통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우회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장커는 ‘형태(form)’로 전통을 설명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감성(sensibility)’을 통해 그것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형태로 구체화되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전통은 오히려 본질이 소외된 것이라 주장하며, 오히려 감성을 통해 전통의 주변을 면밀히 탐침하는 일이어말로 그 ‘근본(root)’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 말한다(Sahu, 2015).

지금까지의 분석과 이러한 입장을 종합해볼 때, 장커의 전통성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의 재(再)문제화이다. 장커는 명성장유지공원 설계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건축가의 길로 들어섰다. 공모의 요지는 ‘역사적인 성벽에 무엇을 할 것인가?’였는데,<sup>11)</sup> 그는 역사를 인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공모의 취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재문제화하는 방식으로 당선되었다. 성벽이 간직한 역사적 층위를 그대로 보존하는 대신, 공원의 남문을 지하철과 연계한 것이다. 장커는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만들어진 전통’에 반대하며, 전통을 체제의 원형(archetype)이 아닌 개인의 경험에서 찾는데, 이는 전통이 형식적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상화 전략이다(Zhang, 2018). 사합원 연작에서 보았듯 건축가는 이질적인 재료를 혼용하고 구법을 자유롭게 변조한다. 전통건축을 직설적으로 모방하는 표상화에 반대하며 무엇이 전통인지를 되묻고 있다. 기존의 관행에 의문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문제화하는 태도야말로 그가 말하는 전통성인 것이다.

둘째, 복잡다단한 삶으로서의 전통이라는 견해이다. 장커에게 건축은 지역적 실천이자, 장소의 반영이다(Belogolovsky, 2019). 귀국 후, 자본주의적 대규모 개발계획에 맞서, 북경 구도심의 일상을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매진했다. 혁신적인 개발보다 조용한 혁명을 추구하고, 자본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도맡았다. 장커의 작업은 삶의 복잡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합원 연작이 보여주듯 버려진 재료를 재활용하여 벽과 입면을 만들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먹물을 콘크리트와 배합하여 장소의 분위기를 이어간다. 작업의 범위와 일정은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진다. 건축가는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과정으로서의 건축을 실행한다. 시간이 돈인 건축 현장에서 비합리적인 일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태도를 소극적이라 볼 수는 없다. 장커의 작업이 내보이는 독창성은 통제 불가능한 삶의 우발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 여기’의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장커에게 전통은 생활 면면에 흐르며 과거와 미래를 능동적으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전통의 핵심은 일상이 당연한 ‘지금 여기’에 있기에, 현실과 유리된 박제된 전통을 거부한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첨단 기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에 관한 입장은 아날로그적인데,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기술의 정도와 수준을 정한다. 모듈은 이러한 ‘적정기술’의 대표 사례로, 구도심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모듈 삽입 방식은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건축 행위를 최소화한 방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지 장인의 기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미잡원과 미호동의 전창 프레임은 철판과 나무 합판을 mm 단위로 가공하여 만든 수제품인데, 기성의 생산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섬세한 아우라를 자아낸다. 장커의 기술은 ‘모방적 신축(仿古新建)’과 ‘폭력적 신축(暴力新建)’ 사이에서 역사 건축물의 복원과 재건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Sun, 2018).

동시대 건축가들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장커의 작업이 갖는 특이성은 이전 세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자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커의 전통관은 90년대 선진 건축가들의 ‘실험건축’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장용허를 필두로 한 이들은 민족 형식을 문제시하며, 개인적인 경험으로 전통을 재해석했다. 미시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전통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수용하고, 재료, 구축, 공간, 환경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했다(Deng, 2013). 대표적으로 장용허는 전통공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를 현대건축에 접목하고자 했다.<sup>12)</sup> 그리고 왕슈는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재료와 장인의 기술을 현대건축에 적용했다.

장커는 장용허와 왕슈의 대안적 전통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지만, 이를 의제화하지 않는다. 전통과 중국성에 관한

11) 북경에서 유일하게 남은 명나라 성벽 구간에 문화 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12) 장용허가 말하는 공간은 직교좌표계 속의 물리적 단위가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그가 개념화한 ‘합축공간(合畜空間)’은 관계의 집합을 의미하며, 천인합일의 인식론으로까지 확장된다.

탐구를 건축 활동의 핵심 기제이자 차별성으로 앞세웠던 두 건축가와와는 달리, 장커는 전통을 형식화하지 않으며, 자신의 작업을 중국성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건축을 수행하는 태도에도 이러한 상이함이 드러난다. 이질적인 재료와 구법의 혼용은 왕슈 작업의 특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왕슈의 건축이 십여 년에 걸쳐 배운 토착건축의 구축 방식을 의도적으로 건축화한 것이라면, 장커의 건축은 우발적인 상황 속에서 직관으로 선택하고 구축한 결과라는 차이가 있다.

본고는 장커의 사합원 리노베이션 연작을 바탕으로 그가 말하는 전통성을 논의해 보았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북경 구도심의 사합원 리노베이션 작업으로 한정되어, 그의 건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커가 북경 이외에 지은 현대건축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장커 (Fung & Zhang, 2018) 스스로 건축의 본질이라고 밝힌 ‘시스 템’, ‘텍토닉’, ‘감각’ 등을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REFERENCES

1. Belogolovsky, V. (2019). Zhang Ke of ZAO/standardarchitecture: “Is a New Revolution Possible Today?”, *ArchDaily*, Retrieved July 15, 2024 from <https://www.archdaily.com/910268/zhang-ke-of-zao-standard-architecture-is-a-new-revolution-possible-today>.
2. Correa Mehrotra, N. (2021). In Conversation with Zhang Ke, *Hutong Metabolism: ZAO/standardarchitecture*, Berlin, Architangle, 248-252.
3. Deng, X. H. (2013). A preliminary research into the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of 1960s-born Chinese architects, *Time+Architecture*, 30(01), 28-31.
4. Derakhshani, F. et al.(2021). *Hutong Metabolism: ZAO/standardarchitecture*, Berlin, Architangle.
5. Frampton, K. (2021). The Timeless Architecture of Zhang Ke, *Hutong Metabolism: ZAO/standardarchitecture*, Berlin, Architangle, 14-25.
6. Fung, S. & Zhang, K. (2018). From concept to construction: A dialogue between Zhang Ke and Stanislaus Fung, *Time+Architecture*, 35(01), 76-82.
7. Han, P. W. (1997). Juer Hutong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Chinese urban housing, Siheyuan, for a new prototype.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41(8), 38-40.
8. Hara, K. et al.(2016). *China House Vision*, Beijing, SDX Joint Publishing Company, 46-55.
9. Hou, X. J. (2017). *Conception, Construction and Nexus Management: Intensive Reading on standardarchitecture's Beijing Projects 2012-2016*, Thesis, Tianjin University.
10. Hu, Z. G. (2014). *Study on Liang Sicheng's Academic Practice(1928-1955)*, Ph.D. Dissertation, Nankai University, 239-252.
11. Jia, D. T. (2017). Micro-urbanisation in the Hutong, *Life Week*, 22(44), 98-105.

12. Kim, H. S., & Lee, Y. H. (2019). The Hanok paradox: Modernity and myth in the revival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SPACE*, 618, 110-120.
13. Lee, Y. H., & Kim, H. S. (2014). Discussing the continuity between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in Choi Wook's Hanok renovat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0(10), 133-140.
14. Lee, Y. H., & Kim, H. S. (2016). Type classification of contemporary Hanok: Focusing on architects' designs since 2000,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5(5), 51-62.
15. Li, X. N. (2018). *Towards a Critical Pragmatism: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China*, Guangxi, Guangxi Normal University Press Group, 7-13.
16. Liang, S. C. (2001). *The Complete Works of Liang Sicheng (Vol.5)*, Beijing, China Architecture & Building Press.
17. Lu, X., & Wang, Q. M. (2017). *Beijing Courtyard*, 2nd ed., Beijing, China Architecture & Building Press, 8-23.
18. Ma, W. D. (2016). Feature: Architects in China, *Architecture and Urbanism*, (546), 4.
19. Sahu, V. (2018, December 18). Architects also Need to Think, Right? Uncube standardarchitecture, *Linkedin*. Retrieved July 15, 2024 from <https://www.linkedin.com/pulse/architects-also-need-think-right-uncube-vaibhav-sahu>
20. Shi, L. (2008). *Exploring the Renovation of Beijing's Traditional Siheyuan under Modern Life Mode*, Thesis, China Architecture Design & Research Group.
21. Sun, Y. (2018). *System, Experience and Tectonic: Case Study on ZAO/standardarchitecture's Projects 2009-2017*, Thesis, Tianjin University.
22. Yang, Y. S. (2002). *Four generations of Chinese architects*, Beijing, China Architecture & Building Press, 45-72.
23. Zhang, L. (2018). Interview with Zhang Ke, *Time+Architecture*, 35(01), 11-13.
24. Zhang, Y. F. (2016). Zhang Ke's “Micro Hutong Renewal”, *Domus China*, 11(7), 42-49.
25. Zhang, K. (1996). *Regionalism & Regionalization: Charles Correa's Theory on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the Enlightenment to China*, Thesis, Tsinghua University.
26. Zhi, W. J., He, R., & Dai, C. (2018). “Decoding” Zhang Ke: Seventeen years practice of ZAO/standardarchitecture, *Time+Architecture*, 35(01), 94-101.

(Received Aug. 5, 2024/ Revised Sep. 4, 2024/ Accepted Sep. 25, 2024)